

올해는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폐허의 기억이 아직도 가지지 않은 그 시절은 매우 가난했다. 오죽했으면 에티오피아나 필리핀 같은 나라의 원조까지 받아야 했을까. 그런 나라가 식민지와 전쟁의 역경을 딛고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실로 기적 같은 일에는 우리 젊은이들도 한 몫을 했다. 이제까지 여러고 나아해 보이거만 하던 세대들이 최근에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내고 있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와 열정은 지방선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이어진 상반기의 답답함을 한꺼번에 씻어주었다. 최근에는 젊은 태극 남자들은 남자 선수들이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가 U-20라는 20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3위에 올랐다. 준결승전에서 남미 강호 콜롬비아에 승리를 거두면서 기본 좋은 승리를 안겨 준 것이다. 한국은 유럽, 남미, 북중미, 아프리카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팀들을 모두 꺾는 전기도 세우며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비록 큰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민족이 누구일까. 스케이트, 골프, 수영 등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이버 외교사절단으



불자 세상보기

이강벌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상임이사

젊은 패기로 세계와 소통한다

로 불리는 '뱅크(VANK)'의 역할도 눈길을 끈다. 동해의 표기를 바로잡는데 많은 공헌을 했고, 미국 뉴욕의 심장부에 등장한 독도와 동해 광고로 이어졌다. 분단국인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구촌의 곳곳에 뛰어들어 진실과 희망을 외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들은 그저 우리의 역사적 사실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다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확신을 갖고 끊임없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는 노력이 지금의 영향력을 만들어준 것이다. 분명 말치 않은 미래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비보이, e-스

포츠 등 새로운 문화 콘텐츠에서도 선두를 달리며 부(富)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브레이크 댄스 그룹인 비보이는 국제대회마다 우승을 휩쓸어 세계 최강임을 보여준다. 오죽하면 지구촌의 지방생들은 한국을 성지로 여기고 기술을 연마하고자 찾아올까. 그 래서인지 서울 신촌의 홍익대학 앞 비보이 공연장은 연중 성황을 이룬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길거리에서의 취미활동으로 시작한 브레이크 댄스는 어느새 공연산업의 콘텐트로 성장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온라인 게임 산업의 중추국이다. 컴퓨터 게임을 거두는 e-스포츠 산업에서도 한국은 세계 최초

로 프로 게임단을 탄생시켰고, 대회와 선수 그리고 기업과 미디어를 체계적으로 가능케 하는 모델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안해 내기도 했다. 한류도 최근에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그 잠재력은 세계가 인정한다. 비언어극(非言語劇인 '난타'나 '점프'를 보려고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고 지난 해 한류와 관련된 문화상품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경제적인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금 세계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수의 세계인들은 유일한 분단국, 대립적 노사관계,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 등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국가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있는 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언뜻 보기에도 당돌하고 버릇없어 보이기도 하던 이들에게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축적된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개성이 뚜렷한 그들만의 독특한 창의력과 열정은 남이 가지 않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창조했다. 이즈음 그들이 좀 더 다양하게 자신들의 에너지를 발산해 낼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이층 요구된다.

사설

군부대 이전해도 법당은 유지해야 한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법당 유지 대책이 시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해당 종단과 교구에서 적절한 대책 수립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성남에 있던 특수전사령부 등 7개 군부대가 이전 등으로 이전한다. 2012년부터 이전을 시작한다.

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군부대 부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다. 군부대 부지는 택지 또는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불자장병들과 부대 인근 주민들의 신행의 중심이었던 법당이 없어지는 것이다. 장병들은 이전된 부대를 따라가면 되지만, 지역주민들은 등지 없는 새처럼 귀의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군법당은 국방부 소유의 부지에 법당으로 활용할 건물을 불교계에서 지

어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세워지므로 부대가 이전하면 어떤 권리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법적인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종교부지를 위한 공간조작을 세우기 위한 법당의 매입 또는 임대를 추진해 신앙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매입하거나 임대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예정 지역은 내후년부터 이전하니 곧 종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자들을 위한 공간조작 없는 곳이 된다. 종단이나 교구에서는 그 밖의 군부대 이전 계획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내에 기부채납 사찰 헌수특위가 구성되어 있다. 특위에서 실태조사도 했다. 총무원과 군종교구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고, 종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무례한 개신교 사과해야 한다

정전을 할 때에도 적절한 방법이 있다. 하물며 비판을 하려면 예의를 갖춰야 한다. 예의도 갖추지 않고, 사실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을 삼는다면 이는 비난이며 폄해이다. 7월 중순 개신교계의 몇 단체가 일간지 광고를 통해 불교계를 비난, 폄해했다.

광고에 적시된 내용을 보니 너무 어이가 없다. 불교계가 조선총독부로부터 토지를 받았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상식을 의심케 할 정도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일간지 광고를 통해 세상에 유포했으니 이만저만한 무례가 아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종교지도자협의회를 통해 사과를 요청했음에도 해당 개신교단체는 입을 다물고 있다.

개신교계의 몇 단체가 불교 폄해를

공공연회 자행하는 것에 대해 문화재 보수와 템플스테이에 지원되는 정부에 산을 줄이려는 의도를 실행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신교신자인 유인준 문화부장관이 템플스테이를 전통 문화콘텐츠로 인식하지 못하고 불교계의 사업으로 바라보는 것은 시야를 드러냈듯 문화유산을 불교로 등치시키는 개신교계의 소아적인 인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개신교계의 정중론 사과를 요구하며, 동시에 개신교를 상대로 맞대응하기보다는 불교계의 목소리에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종교갈등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하며, 지혜로워야 한다.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한일불교간 학술문화교류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한국불교의 해외교류는 1992년 한·중 수교와 더불어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중국,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몽골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한·중·일 3국 불교 교단과의 교류를 제외한 교류활동은 대부분 종단차원의 공식 교류활동이 아닌 한국스님들의 개별적인 유학 또는 상대국가 스님들의 한국체류 및 한국 사찰의 현지불교 기관 또는 사찰에 대한 지원사업에 머물러 왔다.

한편, 참여불교재가연대, 정토회, 우리는 선우, 불교여성개발원과 같은 불교시민단체들은 인적·학술문화교류 또는 개발도상국 불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2003년 참여불교세계대회, 2004년 세계여성불자대회의 한국 개최 등을 주도함으로써 국제적인 참여불교운동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 실현, 빈곤과 부의 균등, 분쟁종식과 평화, 환경문제 등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전세계 불교도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였다.

1990년대 JTS가 인도 보드거야에서 시작한 개발사업은 2000년대 아프가니스탄, 필리핀으로 확대되었고, 이후 지구촌공생회, 로터스월드,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경북련의 이웃을 돕는 사람들 등 불교국제개발단체에 의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졌다. 이들 불교개발단체들의 활동은 해당 지역의 소

외계종과 아동에 대한 교육, 보건환경 개선, 자활, 식수지원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이자 불교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현지 불교기관과의 교류나 지원 차원을 넘어가고 있다. 이 밖에도 조계종 산하 마하이주노동자대책위와 같은 단체들이 추진해온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또 다른 의미에서 교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해외교류 사업은 상호신뢰를 통해 불교문화간 이해를 높이고 상대방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여 자국의 불교전통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현지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불교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류의 취지와

목적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종단이나 사찰, 단체에서 하니까 따라 한다는 식, 또는 구색맞추기 식으로 추진되어서는 곤란하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을 구체화할 때만이 교류사업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인위적 보편적으로 지나야 할 가치 또는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교류의 원칙을 세워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인권과 종교자유 보장, 평화 실현과 같은 원칙 말이다.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가 한일불교간의 학술문화 교류차원에서 30년 이상 추진되어 왔지만, 일본불교의 한국인정용자 유해 반환과 조선침략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낸 것은 평화에 대한 불교적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교류 당사자끼리 시급한 공

동의 실천과제를 선언적 차원을 넘어,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필자가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에서 엄청난 자본력을 갖고 개종을 강요하고 있는 한류 개신교의 무분별한 선교활동에 대한 대응이다. 개신교 선교행위로 인하여 개발도상국가의 전통문화가 위협받고 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만 한국교인 1000명 가운데 700여 명이 선교사라고 한다. 또한 현지 주민을 위하여 무료로 운영되는 프놈펜의 개신교병원에 종사하는 한국인 의료진이 6명이다. 개신교의 공격적인 선교활동은 비단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스리랑카, 몽골, 라오스, 인도 등 아시아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 한·중·일 3국의 불교종단만으로는 개신교의 아시아 선교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이 자국의 전통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해외교류라고 해서 해외로만 눈을 돌리지 말고,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 지원, 또는 아시아 국가 출신 난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해외교류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사전 답사 또는 중복지원과 교류를 피하고 보다 신뢰할만한 객관적 교류 대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종단 또는 종단협의회 내 관련 부서의 지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양성 이 시급하다.



사부대중 칼럼

민정희

前 로터스월드 국제교류팀장

한국불교의 해외교류 제언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트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태어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들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예)
-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 ⑫ 풀이된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에는 왜 명당이여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시키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 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1768-8414~6, Fax 0311768-8413

특급정보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벌케어 **신제품**

팔꿈치 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 통증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벌케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벌케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일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관절이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엘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글로벌케어크림을

발라주겠다고 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름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팔꿈치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관절만 팔꿈치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사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ml×2개, 1set 가격 30,000원(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금강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 나빨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유효성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보면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50,000원**
금강닥터사 / 전화: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